

장기요양기관 노인의 일상스트레스, 자아탄력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강일¹, 이종훈^{2*}

¹호서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²송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HRD연구소 교수, 평생교육학 박사

The Impacts of Daily Stress, Ego Resilience,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n Long-term Care Institutions

kang il Lee¹, Lee Jong Hun^{2*}

¹Graduate School of Hoseo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octoral Program

²Professor of Korea Life-Long Education·HRD Research Institute of Soongsil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장기요양기관 노인의 일상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삶의 질 변인 간 인과관계 모델을 설정하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수도권에 소재한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종 380명을 SPSS 22.0과 AMOS 22.0을 이용하여 일상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삶의 질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노인의 일상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부(-)적인 직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자아탄력성은 삶의 질에 정(+)적인 직접 효과가 있었다. 셋째, 노인의 일상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직접 효과가 나타났다. 넷째, 노인의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일상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간접 효과 및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일상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 주제어 : 장기요양기관, 일상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노인, 삶의 질

Abstract In this study to identify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aily stress, ego-resilience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n long-term care facility, a causal relationship model was set up and path analysis was performed. The data collected from 380 elderly users in private long-term care facilities in Greater Seoul Metropolitan area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and AMOS 22.0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daily stress, ego-resilience,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aily stress of the elderly showed a negative (-) direc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Second, the ego-resilience of the elderly had a positive (+) direc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Third, daily stress of the elderly showed a positive (+) direct effect on ego-resilience. Fourth, daily stress of the elderly showed indirect effect and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through ego-resilience.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reduce daily stress and increase ego-resilience.

• Key Words : long term care institutions, daily stress, ego-resilience, the elderly, quality of life

1.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노인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의학 및 과학기술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여타 국가들과 비교할 때 급속히 초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즉 노인의 증가 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14.0%, 2018년 14.3%로 고령사회(Ageing Society), 2026년 20.8%로 초 고령사회, 2050년 34.4%로 최고령국가[1,2]가 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의 기대여명은 1970년 61.9세에서 2015년 남자 82.62와 여자 87.62로 수명 연장의 지표를 보이고 있다[3].

급속한 노인 인구의 증가추세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여 노인의 건강 상실, 소득 상실, 지위 및 역할 상실 등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국내 상황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저 출산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다음 세대들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정부 당국은 노인들의 건강 및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으로 2007년 0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다. 즉 2008년 07월 공공시설 및 민간 시설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설립을 시작으로 2015년 01월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은 4천9백 개의 기관과 재가 장기요양기관 1만 1천 9백 곳 등 총 1만 6천 8백여 기관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4].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는 노인성 질환을 지니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서적·인지적 및 일상생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매우 낮은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인건비 비율 인상, 과도한 재무회계 규칙 및 엄격한 감독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노인 이용자의 서비스 질은 더욱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노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신체적 질환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점 둘째, 노후보장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향후에 국가 또는 사회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문제들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

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질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과 관련되는 국내 선행연구를 확인한 바,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인으로는 신체, 여가, 일상생활, 시설이용,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등이 있다[5,6,7,8,9,10]. 또한 장기요양기관에 입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만족도 연구[11]와 노인의 건강, 요양보험 제도,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 등 선행 변인과 삶의 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등 [12,13,14,15]으로 진행되어 왔다.

한편, 일상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삶의 질과 관련되는 선행연구들은 주로 보육교사, 한 부모여성, 중년여성, 직장인, 초임유아교사 등과 기혼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직업 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관계 [16]를, 치과위생사의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질과의 관계[17]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상에서 연구 대상자별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 관계성을 확인한 결과 일상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변인이 삶의 질에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이용 노인은 신체적 질병 등으로 인하여 평소에 일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지만 스스로 이를 극복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기에 그들의 가진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에서 중요한 변인이자 건강과 관련되는 노인의 일상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변인 간 실증적 분석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상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변인들 간 영향력에 대한 규명을 통해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노인의 일상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직접 효과가 있는가?
- 2) 노인의 자아탄력성과 삶의 질에 직접 효과가 있는가?
- 3) 노인의 일상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에 직접 효과가 있는가?
- 4) 노인의 일상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삶의 질에 매개 또는 간접 영향을 미치는가?

2. 이론적 배경

한국은 현재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은 질환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삶의 질은 건강과 노인과 비교해 볼 때 삶의 질은 더욱 저하될 수 밖에 없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질환을 가진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건강체크를 하여 관찰, 관리,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향후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질병 예방 및 관리 개념을 합친 전반적인 건강관리 사업인 헬스케어 도입하고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변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2.1 노인의 삶의 질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용어는 안녕, 복지, 생활수준, 만족도, 행복감 등으로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다[18]. 학자들 또한 삶의 질에 대한 정의는 서로 주장이 다르고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아서 각각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여 사용되어 왔다[19]제인용.

삶의 질 개념과 관련하여 1960년대에 서구에서는 사회지표운동(Social Indicators Movement)의 사회구성원들은 종합적으로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개되었다. 이때 행복감은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보다 우세한 심리상태라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0].

1970년 이후부터 삶의 질에 대한 학문적, 현실적 관심[21,22]과 행복은 보편적, 규범적인 가치보다는 개인적 가치로 판단하고 있으며 [23]은 전반적인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로 보았다.

1980년 이후의 학자들은 삶의 질에 대하여 [24]은 객관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정의하였다. 삶의 질에 대하여 [25,26,27]는 주관적으로, [18]는 객관적, 주관적으로 구분하였다. [28]는 개인-집단과 주관성-객관적으로 분류하였고, [29]는 신체적, 사회적 기능과 신체감각, 주관적인 안녕 등으로 삶의 질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

또한, [30]는 삶의 질을 8가지로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신체적, 정서적, 대인관계, 물질적 안녕감, 사회통합, 개인적인 발전, 자기결정 등으로 지표를 설정하였다. [31]는 삶의 질에 대하여 행복에 대한 즐거움, 의미, 몰입, 추구, 경향을 하위변인으로 포함하여 행복추구에 따른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32,33]은 삶의 질의 대한 용어를 폭 넓게 해석하여 행복감, 기쁨, 안녕, 복지, 충만, 사기, 적응과 인간적, 주관적 복지, 긍정, 부정적 감정 등으로 정의하였다.

2.2 일상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라틴어인 "stringere"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팽팽하게 죄 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14세기에 곤란, 고통, 역경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였다. 우리말로 스트레스를 해석하면 압박, 자극을 뜻하고 있지만 물리학적 용어로는 어떤 물체에 대한 외부 압력으로 인해 발생한 비틀림과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복원력을 포함한 것으로 의미하였다[34,35]제인용.

[36]는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환경의 요구가 과도하여 개인이 이에 대처 할 수 있는 상태를 초과할 때 발생하는 불균형 상태를 말하며, 개인의 안녕이 위협당한다고 평가될 때 개인과 환경과 특정한 관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2.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내적, 외적으로 환경적 스트레스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여 역경이나 어려운 상황을 회복하고 다양한 상황적 요구에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적응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37,38,39,40]은 자아탄력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환경적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에 대처하는 행동능력과 긍정적 반응을 통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서적 스트레스 상황을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였다.

일상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적인 특성인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융통성을 발휘하여 효율적으로 이에 대한 적응을 하고 충동성을 통제하여 스트레스에 대해 적응력이 높다[39,40,41]고 하였다.

[42]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보다 자아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위협적으로 인지하여 불안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스트레스로 지각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기불안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1. 삶의 질의 용어는 1930년대 후반 지역사회 내에서 삶의 질에 관심을 갖던 사회과학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후 미국에서는 1956년 정치적 슬로건으로 사용하였으며, 유럽에서는 1970년, 국내는 1990년 중반부터 사용되었다[19]제인용.

2.4 변인 간 관계성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본 절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은 신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기에 일반 노인들 보다 일상스트레스를 더욱 심하게 경험한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이용 노인은 자아탄력성을 지니고 있기에 일상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한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확인해 보고 한다.

2.4.1 일상스트레스와 노인의 삶의 질 관계

일상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대상[43,44]과 직장 근로자 대상[43,44,45]으로 한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결과들은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데 이를 살펴보면 [43,44]의 연구에서 일상스트레스는 노인의 삶의 질에 정적(+)영향을 미치고, [45,46,47]의 직장 근로자 대상 연구 또한 일상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상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질은 낮아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로 [48]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부적(-)영향을 미치고, [49]의 강원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일상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

2.4.2 자아탄력성과 노인의 삶의 질 관계

자아탄력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50,51]는 노인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52]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53,54]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한 연구, [35]은 중년여성, 직장인, 보육교사 대상의 결과로 자아탄력성과 노인의 삶의 질은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다. 그러나 [51,55]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노인의 삶의 질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2.4.3 일상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스트레스, 자아탄력성의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환자 대상[56]과 요양보호사

및 간호사, 노동자, 종사[57,58,59,60,61,62,63]대상의 연구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로[58,59]일상스트레스, 자아탄력성의 질은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56,57,60,63]은 변인간의 조절효과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1,62]은 유의하지 않는 결과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4 일상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노인의 삶의 질의 관계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일상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환자 가족 대상[64]과 직장 근로자[35,62], 현장실습 응급구조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62]의 연구가 있다. [64]에 나타난 연구결과로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일상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35,68,62]은 일상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상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 되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의 수도권에 있는 민간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노인전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방문요양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65세 이상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가운데 3등급 이상인 자로 스스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용노인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이들 중 설문에 동의한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 서울 지역 25곳, 경기 지역 25곳 중 서울 지역 9곳, 경기 지역 11곳을 연구자가 무작위로 선정하였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중 450명을 무선표본추출 방법으로 표집을 하였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구성하였다.

3.2.1 일상 스트레스

FILE(family Inventor of life and changes)를 기초로 [66]의 의해 개발된 일상스트레스의 측정도구를 [67,46]가 재수정 보완하였으며, 상실감 2문항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은 총 19개 문항으로 가족문제 9문항, 경제문제 5문항, 건강문제 3문항, 주거문제 3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개발 당시 도구의 [46]의 신뢰도는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인 Chronbach's α 값은 .868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인 Chronbach's α 값은 .912이었다. 이를 세부 측정변수별로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인 Chronbach's α 값을 살펴보면 가족문제 α = .849, 경제문제 α = .908, 건강문제 α = .784, 주거문제 α = .828로 나타났다.

3.2.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관련 노인의 적응유연성척도는 [68]에 의해 개발된 자아탄력성의 설문문항을 재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69] 측정도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 원 개발자의 설문문항을 동일하게 재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총 12문항으로 지지적관계 6문항, 종교적성향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개발 당시 도구의 [68] 신뢰도는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인 Chronbach's α 값은 .900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인 Chronbach's α 값은 .915이었다. 이를 세부 측정변수별로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인 Chronbach's α 값을 살펴보면 지지적관계 α = .796 종교적관계 α = .975 로 나타났다.

3.2.3 삶의 질

노인의 삶의 질 관련 측정도구[70]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생활에 대해서 느낌을 주관적 삶의 측정으로 구성된 치매노인의 삶의 질 척도(GQOL-D: Geriatric quality of life-dementia)는 [73]에 의해 개발된 치매노인의 삶의 질 설문문항을 재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71]의 측정도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설문은 총 13문항으로 신체적 건강 5문항, 심리적 건강 5문항, 사회적 관계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개발 당시 도구의 [71]의 신뢰도는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인 Chronbach's α 값은 .80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인 Chronbach's α 값은 .892 로 이를 세부 측정변수별로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인 Chronbach's α

을 살펴보면 신체적 α = .836 심리적 α = .844 사회적 α = .787로 나타났다.

3.3 설문지의 신뢰도

본 연구의 설문을 통해 응답자가 일관성 있게 조사에 응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했다. 신뢰도란 측정대상을 여러 번 측정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지표를 구성하는 항목들 간에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알파 계수가 0.7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모든 변수의 알파 계수가 0.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1> Measuring tools

variable	the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daily stress	19	.912
ego-resilience	12	.915
quality of life	13	.892

3.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2017. 02. 06-2017. 02. 28까지 장기요양기관의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설문문항을 직접 설명하였으며, 또한 질문 문항에 대한 내용과 질문의 목적 그리고 기입요령을 설명한 뒤 연구 대상자가 질문 내용에 응답하는 자기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사용하였고,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한 450명의 자료 중에서 결측치와 이상치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8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 분석을 위해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과정을 거쳐,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22.0과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22.0을 사용하였다. 일상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들의 문항간 내적 일관성인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고, 일상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변인들 간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경로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상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삶의 질의 변인 간 직접효과, 간접 효과, 매개효과를 규명 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적 유의도 검증은 .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4. 연구결과 및 해석

4.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변인 간 상호 상관행렬

나이 빈도분석결과 이용자중 81-85세 130명(34.2%), 76-80세 99명(26.1%), 86세 이상95명(25.0%), 71-75세 34명(8.9%), 65-70세 22명(5.8%) 순이었다.

<Table 2> Age frequency anal

age		frequency	per cent	valid per cent	cumulative percent
validity	65-70	22	5.8	5.8	5.8
	71-75	34	8.9	8.9	14.7
	76-80	99	26.1	26.1	40.8
	81-85	130	34.2	34.2	75.0
	86over	95	25.0	25.0	100.0
total		380	100.0	100.0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long term care institutions (Nursing home, visiting care, daytime care)

	frequency	percentage	valid percentage	cumulative percentage
nursing home	207.00	54.47	54.47	54.47
visiting care	111.00	29.21	29.21	83.68
daytime care	62.00	16.32	16.32	100.00
total	380.00	100.00	100.00	

장기요양기관의 유형별 기술통계는 <Table 3>에 제시되어있다. 분석결과, 요양원의 빈도는 207.00으로 퍼센트는 54.47로 나타났으며, 유효 퍼센트는 54.47과 누적 퍼센트는 54.47로 나타났고, 방문요양의 빈도는 111.00으로 퍼센트는 29.21로 나타났으며, 유효 퍼센트는 29.21과 누적 퍼센트는 83.68로 나타났고, 주간보호의 빈도는 62.00으로 퍼센트는 16.32로 나타났으며, 유효 퍼센트는 16.32과 누적 퍼센트는 100.00로 나타났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daily stress, ego-resilience, and quality of life

	N	Min.	Max.	M	stand ard deviati on	skewness value		kurtosis	
	stat	stat	stat	stat	stat	stat	stand ard error	stat	stand ard error
daily stress	380.00	1.00	4.09	3.00	0.59	-0.78	0.13	0.29	0.25
ego-resilience	380.00	2.00	5.00	3.65	0.62	-0.26	0.13	-0.29	0.25
quality of life	380.00	1.38	4.33	2.75	0.57	0.33	0.13	0.00	0.25
valid number	380.00								

일상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삶의 질 간의 기술통계는 <Table 4>에 제시되어있다. 분석결과, 일상스트레스의 통계량은 380.00의 최소값은 1.00으로, 최대값은 4.09, 평균은 3.00, 표준편차는 0.59로 나타났다. 한편 왜도의 통계량은 -0.78로, 표준오차는 0.13, 첨도의 통계량은 0.29이고, 표준오차는 0.25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의 통계량은 380.00의 최소값은 2.00, 최대값은 5.00, 평균은 3.65로, 표준편차는 0.62로 나타났다. 왜도의 통계량은 -0.26, 표준오차는 0.13, 첨도의 통계량은 -0.29, 표준오차는 0.25로 나타났다.

삶의 질 통계량은 380.00로 최소값은 1.38, 최대값은 4.33, 평균은 2.75, 표준편차는 0.57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왜도의 통계량은 0.33, 표준오차는 0.13, 첨도의 통계량은 -0.00, 표준오차는 0.25로 나타났다. 모든 연구변수들의 첨도와 왜도의 절대값이 7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정규 분포를 가정했다고 볼 수 있다.

4.2 일상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삶의 질 변수 간 상관관계수표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of Daily stress, Ego-resilience, Quality of life

variable	daily stress	ego-resilience	quality of life
daily stress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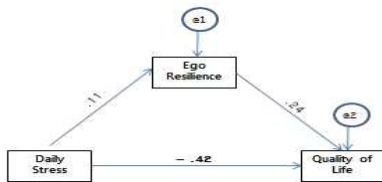
***p<.001. *p<.05

일상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삶의 질 변수 간 상관관계수

를 나타낸 결과는 <Table 5>에 제시 하였다. 분석결과, 일상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은($r=.03, p<.05$)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스트레스와 삶의 질($r=-.39, p<.001$)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탄력성과 삶의 질($r=.19, p<.001$)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각 변수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4.3 일상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노인의 삶의 질 변수 간 경로분석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경로분석 모델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1]. <Table 6>



[Fig. 1] Path analysis Model

<Table 6> Path Analysis Results on Daily stress, ego-resilience, quality of life

path	unstandardized coefficient (B)	standardized coefficient (β)	S.E	C.R.	P
ego-resilience ← daily stress	.12	.11	.05	2.24	.025*
quality of life ← daily stress	-.40	-.42	.04	-9.04	***
quality of life ← ego-resilience	.22	.24	.04	5.21	***

***p<.001. *p<.05

일상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삶의 질 변수 간 경로분석 결과는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자아탄력성과 일상스트레스는 ($\beta=.11,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은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어, 노인의 일상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노인의 일상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대한 직접 효과($\beta=-.42, p<.001$)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 할 수 있어, 노인의 일상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부(-)적 영향이 유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노인의 자아탄력성이 삶의 질에 대한 직접 효과($\beta=.24,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자아탄력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을 알 수가 있다.

노인의 일상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삶의 질 간 경로분석 결과, 모든 경로가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노인의 일상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직접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일상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을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다.

4.4 경로분석 모델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노인의 일상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을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간접 효과 검증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Significance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 between life quality variables of elderly people on daily stress by ego-resilience as a parameter

variable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daily stress	ego-resilience	daily stress	ego-resilience	daily stress	ego-resilience
ego-resilience	.11		.11			
quality of life	-.39***	.24***	-.42***	.24***	.03	
ego-resilience	Significance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					
quality of life						.015*

***p<.001. *p<.05

경로분석 모델은 변수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간단히 산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일상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을 통해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알아보았다.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일상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간접 효과는 .03으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일상스트레스는 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효과 외에도 자아탄력성을 통해 삶의 질에 간접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일상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변인 간 관계를 규명하고자 경로분석으로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의 일상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부정(-)인 직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국내 선행연구[43,44]에서 혈액투석 노인과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스트레스는 노인의 삶의 질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직장근로자 대상 연구결과[45,46,47]에서 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연구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43]의 직무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부정(-)영향을 미치고, [49]의 연구에서도 일상스트레스는 노인의 삶의 질은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일상스트레스를 감소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노인의 일상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정서적·신체적·심리적·사회적·인지적 서비스 제공 및 일상생활의 수발 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부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문가 부족 등으로 그 실효성을 극대화 하는데 미흡하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요양기관에 충분한 인적·물적·교육자원 제공으로 노인의 일상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노인의 삶의 질에 정적(+)으로 직접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선행연구로 [51,56]은 자아탄력성은 노인의 삶의 질에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연구로 [50]는 노인환자 가족 대상, [52]는 청소년대상, [53,54]은 중·고등학생대상, [55]은 중년여성, 직장인, 종사자,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노인의 삶의 질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상스트레스와 노인의

자아탄력성은 내적·외적의 환경적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반응하는 정적(+)의 연구[39]와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정적(+)인 연구결과[40]가 있다.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즉 노인은 질병이 노인의 자아탄력성은 더욱 약화될 수 있다. 이에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기관장 및 요양보호사들은 노인의 자아탄력성을 회복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적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노인의 일상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직접 효과가 나타났다. 본 선행연구와 상반되는 연구결과로 요양보호사 및 간호사, 노동자, 종사자 대상[62,63]은 부정(-)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연구로 요양보호사 및 간호사, 노동자, 종사자 대상[58,59,60,61,64] 연구와 정적(+)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57]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조절효과를 통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은 자아탄력성은 내적, 외적으로 환경적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적응하여 역경이나 어려운 상황을 회복하려는 것으로 일상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에는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노인이 극복할 수 있는 일상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동시에 이를 극복하려는 자아탄력성 또한 회복력이 상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넷째, 노인의 일상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간접 효과 및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동일성을 보이는 연구결과로 [55,66,63]은 일상스트레스, 삶의 질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상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한 노력과 자아탄력성을 고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상스트레스는 노인의 삶의 질에 부정(-)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은 노인의 삶의 질은 정적(+)영향을 미쳤으며,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일상스트레스는 노인의 삶의 질에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대한 정책적 함의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상스트레스를 감소함과 동시에 자아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노인요양기관 종사원의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외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고령 사회로 접어든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민간 및 국가 기관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Statistical Office, Old age statistics, 2014.
- [2] Y H.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Service Type of Elderly Care institutions on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Centered on depressive mediation effects. Graduate School of Central Theological University of doctorate thesis, 2015.
- [3] Statistical Office, Estimated life expectancy, 2015.
- [4]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http://www.longtermcare.or.kr>.
- [5] S. B. Jo, A Study on the Society factor of the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of doctorate thesis, 2010.
- [6] A R. Choi, A comparative study on determination factor of quality of life for senior between Korea and Japan : based on economical, social, physical, and psychological aspects.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of doctorate thesis, 2011.
- [7] Y. K. Kim, A study on the physical, social, and leisure-welfare factors in the quality of life for the aged. Graduate School of Seoul Christian University of doctorate thesis, 2013.
- [8] C. O. Kim, The Effect of Leisure Commitment to the Quality of Life on the Elderly: With focus on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Graduate School of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of doctorate thesis, 2014.
- [9] Y. T. Kim, W. Y. Jung, T. J. Park, "A study on the effect of leisure perception of chinese elderly on quality of life : the moderated effect of leisure flow", *Tourism and Leisure Studies*, Vol. 28, No. 3, pp. 273-290, 2016.
- [10] J. Y. Lim, G. Y. Jeon. "Elderly's Stress and Anxiety: The Mediating Effects of Cognition of Threatening Situation and Meaning in Life", *Journal of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32, No. 1, pp. 257-272, 2012.
- [11] Y. M. Byon, The Effect of Nursing institutions Services on Protected Old People's Quality of Life. Graduate School of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of doctorate thesis, 2008.
- [12] S. S. Kang, The Influenc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 on Quality of Life: Focusing on Service Users and Their Family Members.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of doctorate thesis, 2009.
- [13] J. N. Jeong, Effect of Inpatients' Service Satisfaction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Geriatric Hospital.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of doctorate thesis, 2013.
- [14] J. Y. Park, The Effect of Quality of Life of Family caregiver with long-term inpatient. Graduate School of Nambu University of master's degree thesis, 2014.
- [15] D. Y. Kim, Study on Dietary Quality, Eating Pattern, and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with Functional Decline.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of doctorate thesis, 2015.
- [16] H. S. Kim, S. S Kim, "A Converged Study about Influences of Job Stress, Job Security, Depression, Family Bond, Subjective Health Status, Social Support on Quality of Life in Married Middle-Aged Mal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3, pp. 101-114, 2017.
- [17] Y. N. Park, S. W. Yeon, "This study was to analyze relations between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emotional labor, quality of life, and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3, pp. 25-33, 2016.

- [18] Schuessler, K. F., Fisher, G. A, "Quality of life research and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11, No. 1, pp. 129-149, 1985.
- [19] N. R. Bae, A Study on the Ecological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People.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of doctorate thesis, 2006.
- [20] Bradburn, N. M,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1969.
- [21]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Russell Sage Foundation, 1976.
- [22] Andrews, F. M., Withey, S. B,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The development and measurement of perceptual indicator, New York: Plenum. doi, Vol. 10, pp. 978-1, 1976.
- [23] Shin, D. C., Johnson, D. M.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5, No. 1-4, pp. 475-492, 1978.
- [24] Diener, E,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 95, pp. 542-575, 1984.
- [25] Michalos, A. C. "Job satisfaction, marital satisfaction and the quality of life: A review and a preview. In F. M. Andrews(Ed)", Research on the Quality of life, 1986.
- [26] Myers, D, "Community-Relevant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a Focus on Local Trends", Urban Affairs Review, Vol. 23, No. 1, pp. 108-125, 1987.
- [27] Evans, David R., "Enhancing quality of life in the population at large",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Springer Netherlands, Vol. 33, pp. 47-88, 1994.
- [28] Veenhoven, R,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24, No. 1, pp. 1-34, 1991.
- [29] Kempen, G. I., Ormel, J., Brilman, E. I., & Relyveld, J., "Adaptive responses among Dutch elderly: the impact of eight chronic medical conditions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87, No.1, pp. 38-44, 1997.
- [30] Schalock, R. L., Verdugo, M. A., & Braddock, D. L., Handbook on quality of life for human service practitioners.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2002.
- [31] Peterson, C., Park, N., Seligman, M. E, "Orientations to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The full life versus the empty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 6, No. 1, pp. 25-41, 2005.
- [32] Y. J. Choi, A Study on Factors that Affect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by Ag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of doctorate thesis, 2008.
- [33] M. Y. Jeong, M. Y. Sim, "A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Participating Social welfare Using institutions: Focused on the Program's Participation: Self-esteem and Depression, The Korean Society for Advanced Studies, Vol. 29 No. 4, pp. 1539-1557, 2009.
- [34] A. R. Chung, Relationship of perceived stress and ego-resilience to interpersonal problems of high school students.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of master's degree thesis, 2009.
- [35] M. S. An, The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laried Employees' Daily Stress and the Quality of Life. The Graduate School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of master's degree thesis, 2010.
- [36] Lazarus, RS.,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4.
- [37] Tugade, M. M., Fredrickson, B. L., "Regulation of positive emotions: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that promote resilienc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 8, No. 3, pp. 311-333, 2007.
- [38] Luthar, S. S., Cicchetti, D., Becker, B.,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Vol. 71, No. 3, pp. 543-562, 2000.
- [39] Rutter, M., Eary sources of security and competence. In J. Bruner & Garton (Ed.), Human growth and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40] Ciechettie, D. O., Toth, R., "Psychological resilience

- and capacity for intimacy”, Qualifying paper,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1991.
- [41] H. S. Jang, “Resilience as a factor interrupting psychological disorder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14, No. 1, pp. 113-127, 2001.
- [42] Tellegen, A., “Structures of mood and personality and their relevance to assessing anxiety”, with an emphasis on self-report, 1985.
- [43] O. S. Shim,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derly Hemodialysis Patients’ Stress and Quality of Life.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Christian University of doctorate thesis, 2009.
- [44] H. J. Kang, The Effects of Elders Stress on Successful Aging: Moderating Effects of Selection, Optimization, Compensation Coping Strategies and Social Support.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of doctorate thesis, 2013.
- [45] J. D. Kim, Quality of Life, Risk Factor and Job Stress in VDT Workers with Low Back Pain. Graduate School of Hanyang Theological University of doctorate thesis, 2008.
- [46] D. J. Kim, Verification of the correlation among the stress, self-respect and quality of life of single-elderlies: comparison between the urban and rural groups. Graduate School of Dongbang Culture University of doctorate thesis, 2016.
- [47] B. R. Choi, Association between Occupational Stress, Psychosocial Stress and Quality of Life in 119 Ambulance Workers.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of doctorate thesis, 2015.
- [48] B. H. An, The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of public officials’ leisure activity with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of doctorate thesis, 2008.
- [49] B. K. Kim, The Effect Modification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Quality of Life in a Community. Graduate School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doctorate thesis, 2012.
- [50] M. A. Lee, A study on the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family caregivers of the patients with schizophrenia. Graduate School of Chungnam University of master’s degree thesis, 2005.
- [51] K. H. Jeon, “Exploring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Cognitive Triad in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Life Satisfaction”, Graduate School of Ewha University of master’s degree thesis, 2013.
- [52] M. N. Park, Descriptive study on self-identity, resilience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adolescent survivors with cancer.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of master’s degree thesis, 2016.
- [53] Y. W. Park & K. H. Kim, “Effects of Quality of Life, Family Strength, Self-Resilience on the School Adjustment in Male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1, pp. 221-232, 2015.
- [54] Y. K. Lee, Influence of sports particip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ego resilience, self-expression, and the quality of life. Graduate School of Kookmin University of master’s degree thesis, 2016.
- [55] I. S. Lee, “Mediating Effects of the Self-Resilience between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Life: Comparison of Single-Mothers and Mothers from Two-Parent Families”, Social Welfare Studies, Vol. 44, No. 4, pp. 199-227, 2013.
- [56] K. H. Suh, I. Choi, “Job Stressors, Hardiness, Ego-Resilience, and stress Responses among Geriatric Caregiver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15 No. 2, pp. 309-326, 2010.
- [57] Y. H. Kim, K. H. Suh, “Relationships between Job Stresses, Ego-Resilience, Stress Responses, and Quality of Service among Hospital Employee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16, No. 2, pp. 329-345, 2011.
- [58] A. S. Kim, The Relationship of Hospital Employees’ Job stress, Emotional labor, Resilience and Mental Health.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of master’s degree thesis, 2011.

[59] M. W. Chi, J. Y. Lee, "The effect of emotional workers' ego-resilience and stress-coping methods on their job stress", Korean Journal of Nursing, Vol. 12, No. 2, pp. 49-236, 2012.

[60] J. Y. Lee, M. W. Chi, "Relation among Emotional Labors's Job Stress, Role Conflict, Ego-Resilience and Job Turnover",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6, pp. 191-200. 2012.

[61] S. K. Shim, Ego-Resili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Job Stress of Nurse in Schoolwork.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of master's degree thesis, 2015.

[62] G. S. Kim, The Impacts of Self Resilience and Family Support on the Job Stress of Production workers. Graduate School of Kaya University of master's degree thesis, 2016.

[63] S. J. Kim,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Therapists' Self-Resilience and Burnout.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of doctorate thesis, 2014.

[64] S. D. Kim, Y. H. Kim, "The Effect of Family Resilience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Family Caregivers of the Elderly with the Dementia", Welfare for the Elderly, Vol. 45, pp. 7-32, 2009.

[65] M. H. Heo, The impact of Ego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the Quality of Life and Stress by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Students during Field Practice.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f master's degree thesis, 2015.

[66] I. Kang, A Study on the Mid-Life Family Stress and Family Coping Strategies.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of master's degree thesis, 1990.

[67] Y. J. Lee, A Study on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Stress of the Elderly who lives alon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of doctorate thesis, 1999.

[68] S. S. Lim, J. S.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Resilience Scale for the Elderly in Korea (RSEK)", Counseling Research, Vol. 10, No. 4, 2009.

[69] J. E. Lee, The Influence of Sense of Loss on

Psycho-social Adjustment among the Elderl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Graduate School of Cheongju University of doctorate thesis, 2014.

[70]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Korean Dementia Assessment Test, Seoul: Hakjisa, 2003.

[71] S. M. Lee, Influence of Care Worker's Service Quality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Homebound Elderly under Long-term Care: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giving Burden of Caregivers. Graduate School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of doctorate thesis, 2015.

저자소개

이 강 일(Kang-II Lee) [정회원]



- 2012년 8월 :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7년 5월 현재 ~ :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사회보장, 노인문제, 노인장기요양제도

이 중 훈(Jong-Hun Lee) [정회원]



- 2005년 2월 : 경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경제학석사)
- 2010년 2월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평생교육학과 (평생교육학 박사)
- 2009년 12월 ~ 2017년 5월 현재 : 숭실대학교 평생교육HRD연구소 교수